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2024년 새해,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비상하는 전주대학교"



▲ 지난 8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인터뷰가 진행됐다. (사진: 강수아 기자)

Q. 어느새 전주대학교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의 감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다**

A. 2022년 2월, 전주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우리 전주대신문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한 것이 올해 3월이었는데,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대학 내부적인 혼란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임 2년차에는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 글로벌대학 사업 도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장으로서 전주대학교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전주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대학의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유학생 비자 제한 대학 해결을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회의 개최를 주선 및 참석을 통해 우리 대학의 현안 해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먼저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및 비수도권 7개 권역 총장협의회와 함께 이 법안 개정과 관련된 주체들에게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재적인 신입생 유치·모집을 위하여 전주 시내 고등학교와 전주, 익산 교회에서 청소년 대상 특강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대학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발전기금 기부 가능자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현재 지자체 및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기부금의 경우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벤치마킹하여 학교에 후원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가능성을 넘어 성과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3월, 박진배 총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소통하는 총장, 교육가치창출 1위 대학 등과 같은 다짐과 포부를 알렸다. 그 후,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고, 다양한 사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8일 본지는 그 누구보다도 바쁜 1년을 보낸 박진배 총장을 우리 대학 비서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업적과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들어봤다.

Q. 총장님께서서는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보람찼거나 기억에 남는 일 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격려 방문을 통한 만남,
자기주도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다**

A. 저는 무슨 일이든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을 넘어, 제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자세로 항상 삶을 살아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총장으로 부임하여서도 우리 재학생이 모이는 신입생 적응 강화 프로그램, 학사모니터, JJ취업박람회 및 커피차 운영, 천원의 아침밥, 가을 축제, 외국인 유학생 커피차 운영, 국토대장정, 수퍼스타인증식 등 학생들이 있는 행사에는 일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만났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야기를 나누자면, JJ취업박람회에 격려 방문하였을 때, 약 10명 가량 학생들과 잠깐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진로, 취업 등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해야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지키고 자기주도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구별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주인공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며 우리 각자는 분별되는 존재라는 점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 모두 명품이며 걸작품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은 학생 스스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짧은 대화 시간이었지만, 아마 이런 고민을 소수의 학생뿐 아니라 우리 전주대학교의 많은 재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기회를 만들어, 우리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특강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로특강 시간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재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서실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달 2024학년도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 및 6개의 단과대학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공식으로 남게 되었고,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
더 좋은 캠퍼스를 만들 것

A. 인문콘텐츠대학, 문화관광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등 총 4개 단과대학 학생회 정, 부가 당선되었고 현재 총학생회 정, 부, 중앙동아리연합회 정, 부 및 6개 단과대학 학생회 정, 부까지 총 8개 단위의 학생자치기구장이 공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러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적어지는 것은 우리 대학만이 아닌 모든 대학의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희생정신이 없어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선하고 좋은 학생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시선과 상황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에 대해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같은 학생으로서 의견을 전달할 필요도 때로는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조금은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예로, 올 한해 2023학년도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학생회를 만나 많은 활동을 함께했을 때 우리 학생자치기구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복지 사업 하나하나, 봉사활동까지도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2024학년도에 보궐선거가 1학기 초에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항상 노력하고 있고, 학생자치기구를 통해서도 도우며 조금 더 좋은 전주대학교 캠퍼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생자치기구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공식인 학생자치기구가 채워져 2024학년도 또한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Q. 2023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2023년에 전주대학교가 이룬 성과나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2024년 전망과 계획, 전주대학교의 비전에 대해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담대한 혁신을 위한 비전 준비,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비상하는 대학

A. 올해 우리 대학은 LINC3.0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LIFE사업(광역형, 고도화형),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지역품은대학-중고교연계인재육성사업, 푸드테크 계약학과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3유형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약160여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1유형은 전국 15개(수도권 9개, 지방 6개) 대학만 S등급을 받았는데, 전주대학교가 당당히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올해 2023학년도는 역대 최고 금액의 국고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대학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전주대학교 개교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혁신을 위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JJ VISION 2030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대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우리 대학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주대학교의 역할과 비전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대학 VISION은 학생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거점사립대 1위, 기독교 명문사학, 전북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재도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담대한 혁신을 통해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고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글로벌대학 집필위원장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이용욱 교수(인문콘텐츠대학 한국어문학과)를 글로벌대학 집필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업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글로벌대학 사업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지원 예산의 50%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시행됩니다. 이제는 지역과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도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년 1월,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에 직원을 파견하여 전라북도-전주대학교 상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지역연계 강화 차원에서 지산학협력본부(가칭)를 신설 예정에 있으며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개교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대학 생존을 위한 노력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은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대학, 미래사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Q. 많은 재학생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었던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지난 달 23일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의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한 끼,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

A. 2023년 천원의 아침밥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성공리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매일 400명 내외 학생이 아침 식사를 하며, 총 18,000명의 전주대 재학생이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주대학교 천원의 아침밥은 특별히 전라북도의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메뉴로 건강한 한 끼, 지역의 맛과 가치를 담은 천원의 아침밥으로 레시피 공모전과 한식조리학과와 도움, 식당 사장님들의 참여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의 봉사와 기부 등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동문들께서 천원의 아침밥 기금을 후원해주시는 것은 선배가 후배를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매우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설문 조사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81.9%로 조사되었으며,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질문에는 100%에 가까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 같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조하여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가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대학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위기 극복,
적극적인 도전에서부터 시작

A. 사랑하는 대학 구성원 여러분, 총장 박진배입니다.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의 전주대학교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익히 알고 계시듯,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심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의 위기, 특히 지역에 위치한 우리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있으면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대학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입생 충원을 향상, 중도탈락률 감소, 유학생 유치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 수요자가 우리 대학을 오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우리 대학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학과구조·학사제도를 특성화 분야로 계열화하여 개편해야 하며, 지역 및 산업 구조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연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에도 적극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국고사업비는 교육환경 개선비, 학생 장학금, 경상비, 신입생 멘토링, Together사업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모금입니다. 기부 캠페인 등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지금의 전주대학교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것이며, 앞으로의 70년, 80년, 90년, 100년 후 우리 대학의 미래도 대학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라는 배가 올바른 목적지로 향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개최...역대 최다인원 수여해

지난 22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은 우리 대학 슬로건인 '수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에 맞추어 만들어진 진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다.

2023학년도 2학기에는 77명으로, 역대 최다인원이 수퍼스타 인증서를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180만 원의 장학금과 우리 대학의 마스코트 인형과 텀블러를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진배 총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게 된다면 더 어려움이 몰려오겠지만, 이러한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수상자를 향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본 행사에서는 수여식 이후 각 단과대 교수가 수상자들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 감상과 수퍼스타 인증식 대표 소하진(소방안전공학과) 학우와 이동하(시각디자인학과) 학우의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수퍼스타 최대 점수 수상자인 소하진 학우는 "대학 생활 중 서포터즈 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했고, 이러한 목표로 경험이 쌓여 Star T 점수 1,116점으로 4학년 1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퍼스타 대표 이동하 학우는 "학교에 남아 계열 학우 및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선택을 하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길 바란다"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수퍼스타 인증식 대표 두 학우의 소감 발표를 끝으로 폐막식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며 인증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우리 대학 StarT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설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의 도전정신, 능력개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상상이 현실로... '2023 광고제' 성료

지난 11월 21일 'KT&G 상상univ와 함께하는 상상력 연합 광고제'가 개최됐다.

'KT&G 상상univ와 함께하는 상상력 연합 광고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학생회관 1층과 학생회관 앞 로터리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경영학과 광고동아리인 'CONTI', 'IST', 'AD-MAKER' 총 3개의 동아리가 주관했으며, 'KT&G 상상유니브'가 후원했다.

이번에 개최된 광고제는 '상상력'이 주제였던 만큼 참가자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QR코드를 배치해 관람객들의 피드백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의 위원장인 CONTI 회장 임재현(경영·19)은 "먼저 행사가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고 1년 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절차대로 성공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기쁨에 같이 참여한 전주대학교 광고동아리 콘티, 애드 메이커, 이스트에게 감사하다"라며 다른 동아리 인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광고제는 학생들이 직접 광고를 제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사진 편집 등의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제 광고로 구현하는 과정은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제의 이점을 전했다.

한편, 이 행사의 후원을 맡은 'KT&G 상상유니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과 성장, 교류의 기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미래를 상상하고 스스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학사모니터단, '우리 대학은 우리가 바꾼다'

지난 11월 29일 총장님과 함께하는 '2023학년도 학사모니터' 제3차 회의가 진리관 109호에서 진행됐다.

이 회의는 박진배 총장을 포함한 7명의 학교 관계자와 '지머리', '인포 런', '시그니엘' 3팀이 참여했다. 또한, '2023학년도 학사 모니터'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각 팀은 성과 보고와 소감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머리'팀은 '안전을 도모하는 이동권'을 주제로 선정했다. 이 팀은 총 33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130페이지가 넘는 회의록을 작성했다. 주요 성과로는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주차 존 설치, 전주대학교 장애 접근성 지도 제작 등이 있다.

'인포런'팀은 '교내 휴식 공간 개선'을 주제로 선정했다. 이 팀은 재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위주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성과로는 소리연 주변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학생회관 앞 흡연 공간 개선 방안 제시 등이 있다.

마지막 '시그니엘'팀은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선정했다. 주요 성과로는 진로지원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 포스터 제작 등이 있다.

발표가 끝난 후 박진배 총장은 각 팀의 성과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노력을 칭찬했고 이들과 함께한 학교의 실무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냈다.

한편, '2023학년도 학사모니터'는 활동 시작일인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총 3번의 회의를 총장과 함께 진행했다. 또한, 모든 일정을 참여한 학생에게는 활동 장학금과 총장 명의 위촉장이 수여된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학사 모니터 제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동계방학 취업 준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동계 방학 중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컴퓨터활용능력 실기(1, 2급) 프로그램이 있다. 컴퓨터 활용 및 문서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분야에서 필수요소인 사무처리 능력 함양을 교육한다. 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와 실기 기출문제 교육을 진행한다.

내년 1월 8일~26일까지 15일간 실기 1급 교육이 진행되며, 오는 26일~28일, 내년 1월 2~3일까지 실기 2급 교육이 진행된다. 실기 교육은 스타센터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온라인 입사지원서 캠프는 입사지원서 초급 과정으로, 저학년 학우들도 참여하여 일찍 취업 준비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강의는 내년 1월 9~10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작성의 기초를 다지고 싶은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필수참여자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 모두 참여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세 번째, 온라인 면접 캠프는 경험, 인성 유형 면접전략, PT, 토론 유형 면접전략, AI 면접의 이해와 준비전략으로 총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험, 인성 면접전략에서는 실제 직무역량 중심 면접 질문 의도 분석, 경험 기반 직무 적합성 연계 답변 구성, 직무별 면접 답변 전략, 직무역량을 보일 수 있는 노하우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면접에 대비해 볼 수 있다.

PT, 토론 면접전략에서는 PT 면접 이해와 답변 구성, 스피치 전략, 토론 면접 이해와 준비과정, 토론 면접 진행 이해하기 등 강의로 면접 준비에 필요한 팁을 알아갈 수 있다.

마지막 AI 면접 이해 전략을 통해 AI 면접 도입 기업과 기

관소개, AI 면접 과정 소개와 평가 포인트 제시 등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전주대 온스타(onSTAR) 홈페이지(https://onstar.jj.ac.kr) 비교과 프로그램 란에서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로취업지원실 063)220-2886으로 하면 된다.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지난 11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를 시행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전주대학교(inSTA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인문콘텐츠대학, 문화관광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투표할 경우,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네 단과대학에서 단일 후보가 출마하여 찬반투표로 이루어졌다. 인문콘텐츠대학 기호 3번

'화음', 문화관광대학 기호 4번 'MEMORY', 사범대학 기호 1번 'Better:We', 미래융합대학 기호 2번 '하랑'이 당선되었다.

인문콘텐츠대학은 유권자 585명 중 240명이 투표해 41.03%의 투표율이 집계됐다. 찬성 219명, 반대 8명, 무효표 13표로 94.58%의 득표율을 얻고 '화음'이 당선됐다. 문화관광대학은 유권자 862명 중 356명이 투표하여 41.30%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330명, 반대 12명, 무효표 14명으로 96.07%의 득표율로 'MEMORY'가 당선됐다. 사범대학은 유권자 775명 중 334명이 투표해 43.10%

의 투표율이 집계됐다. 찬성 325명, 반대 3명, 무효표 6명으로 98.20%의 득표율을 얻어 'Better:We'가 당선됐다. 미래융합대학은 유권자 171명 중 98명이 투표해 57.31%의 투표율을 보였고, 찬성 98명, 반대 0명, 무효표 1명으로 98.98%의 득표율을 얻으며 '하랑'이 당선됐다.

한편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의과학대학,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문화융합대학은 등록된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2024년 4월 중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인문콘텐츠대학 기호 1번 '화음'



공약

1. 어촌은 처음이지? (어촌 봉사 활동)
2. 제 1회 인사의 날 (사범대, 인콘대 연합 체육대회)
3. 인문콘텐츠대학 시설 개선 (건물 보수)
4. 인문 25 (시험 이벤트 및 강의실 개방)
5. 화음 플랫폼 (업체 제휴)

사범대학 기호 1번 'Better:We'



공약

1. 행복_200% (사범대학 연합 MT)
2. 제 1회 인사의 날 (사범대, 인콘대 연합 체육대회)
3. 청결_200% (진리관 청결)
4. 합격_200% (임용고시반 환경 개선)
5. 투명도_200% (간담회 개최)

후보자 미등록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경영대학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후보자를 미등록한 단과대학은 내년에 보궐선거를 진행합니다.

문화관광대학 기호 1번 'MEMORY'



공약

1. 학과 교류 활성화 (학과 교류 이벤트)
2. 문광 Festival: memorial
3. 자격증 스탬프 제도
4. 연합 MT: memorable (5개 학과 연합 엠티)
5. 에스원 카드 등록 (에스원 카드 발급)

미래융합대학 기호 1번 '하랑'



공약

1. 재학생 소통 공간 및 문의 게시판 운영
2. 미래융합대학 전용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방식 개선
3. 일상 복지 사업 확충
4. 학과 사무실 개선
5. 점심시간 보장

2023년도 단대 학생회장들의 이야기

2023년 각 단대 학생회의 활동이 끝났다. 단대 학생회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공약 실천과 학우 만족을 위한 활동을 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본지는 단대 학생회장들의 이야기와 학우들에게 전하고픈 말을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과학대학]



Q.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라 하시면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과대 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장극장, 고백:천장의 비밀) 천장관 지하, 잔디밭이 두 곳이 축제하기 정말 좋은 요소라 생각했고, 잔디밭에서 영화 상영, 지하에서는 귀신의 집으로 학우분들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드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기억에 남는 다른 매력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회 친구들과 지하를 꾸미고 만들어 가며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했던 기

억이 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정말 많은 의과학대학 학우분들께서 찾아와 즐겨주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가장 뜻깊고 이번 연도에 가장 기억에 오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Q. 주요공약이었던 농촌봉사활동, 천장공부방, 무료복사소를 뺀 나머지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A. 모든 공약이 이행이 되었지만 단 한 개의 공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차금지 차단봉 설치 공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가 다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체육대회 기간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가 아마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준비한 타임테이블 형식으로도 전혀 흘러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행사 진행이 멈춘 상황이었지만, 급하게 희망을 빌려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을 진행하였고 그 당일 저녁에 타임테이블을 수정하여 체육대회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 노력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은 명확하되, 주위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질서를 세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끝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뜬금없지만 제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저는 인복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학생회장으로서 수많은 행사를 하며 더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먼저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힘든 내색 없이 달려와 준 우리 고백 학생회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도 그 뜻에 의미를 더해주고 우리 학생회의 이름 고백이란 책을 채울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의지가 된 친구들입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즐겨주셨던 학우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처음 보고자 한 목표 많은 추억, 많은 웃음 2023년 분홍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과대학]



Q.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A. 올해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행사도 병행하면서 축제를 기획할 때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축제 당일엔 행사를 즐기는 학우분들을 봤을 때 힘든 기억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Q. 주요 공약이었던 체육대회 개최, 축제 개최, 학생회 단체 봉사 활동을 뺀 나머지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A. 주요 공약을 뺀 진로/취업 프로그램 확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공약도 이행되었습니다. 또한 11개의 세부 공약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Q.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A. 위에 답변했던 것처럼 큰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른 행사를 진행하며, 개인 학업 활동을 병행하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행사를 마무리할 때 그런 감정이 확 풀렸던 것 같습니다.

Q.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학생회를 하면서 학우분들을 위해 여러 공약과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대학교에 애교심이 더욱 생긴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Q.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A. 2023년 봄 자유관 뒤에서 진행했던 경영대학 봄축제 '하트시그널'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Q. '경영대 문화의 날'이라고 학우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공약을 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A. 2023년 5월 31일 전주 메가박스 객사점에서 '범지도시3' 무료 상영을 경영대학 학우분들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Q.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A. 올해 여름 경영대학 농촌봉사활동 '지금 우리 농활은'을 진행하면서 기상변화와 같은 돌발상황이 일어나

서 진행하는 동안 당시 상황은 어려웠지만, 같이 참여했던 학생회 임원들과 참가자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힘내서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2023년 경영대학 학생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생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학생회 행사나 단과대학 학생회 혹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콘텐츠대학]



Q.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5월에 진행된 체육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진리관이라는 건물을 사용하지만, 학과끼리 교류가 쉽지 않은데 다른 학과 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중간에 저희가 기획한 미니게임을 진행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시는 학우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Q. '대신우먼'이라는 학우들의 통학 및 택배 수령의 도움을 주는 공약을 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A. 1학기 때 '대신우먼'을 진행해서 시험 기간 때 늦게

까지 공부한 학우분들의 귀갓길을 도와드렸습니다. 택배 수령은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접수가 들어 오지 않아서 학과 과방에서 보관하기 힘든 큰 물건 등을 보관해드리는 형식으로 바꿔 진행하였습니다.

Q.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아무래도 학생회장이라는 직을 처음 맡다 보니 서툰 점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점을 옆에서 보완해 주는 학생회 임원 친구들에게 많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즐겁게 참여해주시는 학우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융합대학]



도움을 주신 행정실 및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폭우로 인해 기존 행사 개최 장소였던 소리연호수에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희망홀에서 모두가 교복을 입고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등학교 강당에 온 기분이라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곳은 날씨에도 저희 축제를 찾아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Q. '소통의 PAGE'라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에브리타임, SNS 활성화를 통해 학우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의 공약을 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A. 참여소통국의 신설과 함께 '소통의 PAGE' 공약은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에브리타임 게시판 개설 후 행사 소식, 월간지, 달력 등을 업데이트해왔으며 주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공지와 질의응답을 진행해왔습니다. 졸업 공연이나 전시가 많은 2학기의 경우 학과 공연 및 전시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하였고 학우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PAGE 응답하러'라는 건의 소통창구를 열기도 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건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면 당장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 자책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들 즈음 꼭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즐거워하시는 학우분의 얼굴이나 도움을 받으신 학우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회가 참 중독성이 강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Q.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A. 저희의 메인 공약 중 하나였던 '청춘페스티벌'을 <청춘Go Back>이라는 이름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문화융합대학 단독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1학기인 만큼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 만들어 낸 행사라고 생각해 애정이 깊습니다. 학생회를 올해로 3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주체가 되어 내용을 꾸린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부터 예산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섭외, 외부협조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었기에 준비과정도 힘들기도 했지만, 잘 따라와 준 학생회 임원진과 많은

Q.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꼽자면 정말 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회장으로서는 느끼는

Q. 마지막으로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학생회는 정말 본인의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조직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기획한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학생회가 봉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직 2024학년도 문화융합대학 학생회가 없지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더 나은, 더 재미있는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활동하는 학생회입니다. 2023학년도 1년간 고생해준 우리 PAG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임원들, 그리고 제 파트너 부학생회장 최화영!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참여와 응원과 격려로 함께 해주신 문화융합대학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고, 2019년부터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오는 축제가 된 거 같아요. 2023년도 '제4회 평화인의 밤'은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즐겼던 축제를 떠올리며 사회과학대학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만큼 많은 학우님이 다양한 부스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게끔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평화예술대상'이라는 콘셉트로 연말 시상식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며 학우님이 직접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레드카펫과 포토월, 초대장, 그리고 전구 등을 활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이 즐겨주신 것 같아 괜히 제가 더 행복했어요.

계셨는데요. 이것도 정말 힘이 많이 되었어요. (약간 회사로 비유하자면 고객이 회사를 응원해 주신 건데, 어떻게 힘이 안 나겠어요!!) 이 시간을 빌려 저와 학생회를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Q. '제4회 평화인의 밤'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평화인의 밤'은 사회과학대학만의 가을축제 명칭인데요! 코로나-19시기였던 2020년도를 제외하

Q.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 되돌아보면 행사하기 전에 드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 앞섰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해봤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한 분의 학우님이라도 더 행사를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조금은 뼈적었던 몸을 기억합니다.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저 역시 학생회장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많은 고민에 빠진 적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곁에서 함께 격려해 주었던 저희 부학생회장 예훈이와 각 부서 부장님들끼리도 함께 머리를 맞대며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 응원해 주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뽕뽕 뭉치게 되니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금방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떨 때는 길을 가다 문득 잘하고 있다고 외쳐주시거나 조용히 곁에서 응원해 주신 학우님들도

Q. 마지막으로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어느덧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학우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록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족했을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On 학생회 행사를 즐기러 와주신 모든 사회과학대학 학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제 이름 석 자를 외치며 약속해왔던 사회과학대학과 학생회장 서승덕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Only On'의 모습이 여러분의 2023년도 한 편의 추억으로 빛났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또, 저희 On 학생회 임원진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제 뒤에서 묵묵히 따르고 함께 노력해 준 학생회 임원진들이 사실은 가장 빛나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사를 한 번이라도 즐기셨던 학우분이시라면 혹시 주변에 On 학생회 임원들이 지나갈 때 한 번쯤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며 불에 달랑 공기가 정말 차가운 지금이지만, 2023년을 추억하며 묵혀둔 따뜻함으로 이번 겨울도 무사히 마저 보내시길 바라요:~!

팝업 스토어로 보는 소비시장의 변화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쇼핑 문화가 재부상하고 있다. 상설 운영되던 업장의 형태를 일정 기간만 여는 팝업 스토어로 전환한 것이 인기의 비결이 되었다.

팝업스토어의 의미는 직해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깜짝 나타나서 금방 사라지는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팬데믹 이후 팝업스토어가 재평가 받는 이유는 엔데믹(endemic·감염병 주기적 유행)에 대비 가능하다는 점이다. 2주에서 한 달가량 운영되기 때문에 불경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을 필두로 여러 기업이 팝업스토어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7월 장마 기간이 한창일 당시에 성수동 샤넬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비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가 좋았지만 2030 여성들이 입장을 기다리기 바빴다. 쿡 메이 크업 서비스를 받거나 인공지능 기계를 통해 립스틱 색을 추천받기 위해서였다. 많은 여성은 샤넬 뮤즈로 둘러싸인 아트월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체험을 마친 소비자들은 정가 구매를 꺼리지 않았다. 온라인 속 할인보다 현 쾌락이 중시된 셈이다.

신조어 '편슈머'는 팝업스토어 흥행과 동시 등장한 단어이다. Fun(재미)과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이다. 소비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 공간부터 게임·포토

부스 등의 체험형 공간, 카페·식당 형태로 등장한다. 30초의 영상 광고로 브랜드를 이해했던 과거와 달리, 한 시간 내외로 브랜드에 머물며 체험하는 방식이다. 직접 체험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직결되고 있다.

반대로 지난해 성수동에 들어선 '디올'은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제 방문자보다 건물 밖 사진을 찍는 수가 현저히 높다. 건물 간판의 디올 표시는 수천억 원대의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젊은 세대는 어딘가에 방문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콘텐츠가 필요하다. 인스타그램에는 팝업스토어를 해시태그로 단 게시물이 50만 개를 돌파하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MZ세대 심리를 반영한 브랜드의 공략법이다.

거대한 쇼핑센터 '더현대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인기 유튜브 캐릭터 '뽕뽕이'를 주제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 이력이 있다. 애니메이션에 생활 속 에피소드를 유머있게 풀어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뽕뽕이의 생일파티' 팝업 스토어는 올해 7월 26일부터 약 10일간 열렸다.

캐릭터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오픈 4일 새에 1만 명이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또한, 오픈 30분 만인 오전 11시에는 '금일 웨이팅 종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뽕뽕이의 생일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난 데에는 공간의 재해석이 밑받침되었다. 기획은 물론, 브랜드 배치

가 더 현대에서는 MZ를 겨냥하여 꾸며 냈다. '단위 면적당' 매출이 생명인 백화점 공간에 실내 조경과 고객 휴식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쉽게 느끼는 MZ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더 현대에서 팝업스토어 공간을 흔쾌히 내어줬다. 그뿐만 아니라 한정판 신발의 리셀 열풍을 이용하여 'BGZT(번개장터) 랩'을 입점시켰다. 경영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로 꾸며보자"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더 현대를 구상했다"라고 밝혔다.

매출은 이를 증명하듯 타지역의 현대백화점 15개의 점포 평균(24.8)과 비교하여 두 배가량 높은 수치를 내었다.

시대 흐름을 분석하면 성공 요인이 보인다. 팝업스토어와 같은 새로운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기사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극 <하나, 둘, 셋, 김치!>



작품명: 하나, 둘, 셋, 김치!
극작: 김영오
연출: 정찬호
무대감독: 홍정은
출연: 정찬호, 홍정은, 진시라, 전윤경

엄마, 아빠 세 딸 희연, 희서, 희재는 행복하게 살아가던 가족이다. 그러나 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은 각자의 비밀을 갖는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집안 분위기는 위기감으로 무너져 간다. 그러던 어느날...

연극은 시공간 제약이 있어 영화처럼 화려한 장면과 효과음은 없다. 하지만, 눈앞에서 연기자의 호흡을 느낄 수 있으며, 잔잔한 감동을 준다. 우리 대학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연극을 소개하려 한다.

첫째 딸 '희연'은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할 수 있었다. 전공을 살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혼자만의 비밀이 생겼다.

둘째 딸 '희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딸 '희재'는 막내로 귀여움을 받으며 늘 행복할 줄 알았지만, 고3이 되는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세상이 어둡게만 변한 것 같고 집이 더는 안식처가 아니라 생각한다.

아버지 '행식'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과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지만, 아내가 먼저 떠났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뒤 비밀이 생겼다. 엄마가 떠난 후 첫째 딸과 아버지가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이 연극은 재인촌 우듬지에서 주최하고 전주한옥마을 아트홀이 주관하는 창작극 '하나, 둘, 셋, 김치!'이다. 한옥마을 아트홀은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23-9, 3층으로, 우리 대학과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는 25일까지 공연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23일부터 25일까지는 3시와 7시 공연 2회차로 예정되어 있다. 좌석 가격은 전석 2만 원으로, 예매처는 인터파크, 예스24 등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063)-282-1033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김치!"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을 잃은 슬픔과 회복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 각자의 경험이나 감정을 더해 서로에게 더 가깝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e-sports도 스포츠일까?



게임과 스포츠, 활동성을 띠고 경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어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종목. 그렇다면 게임을 스포츠라고 불러도 될까? 아니면 게임과 스포츠는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종목일까.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스포츠도 스포츠, 사회에 발맞춰 스포츠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할 때



“과연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 이러한 낱말의 질문이 9월 항저우,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합동 회견에서 페이커(이상혁) 선수 앞으로 던져졌다. 이에 페이커 선수는 “보통 스포츠라고 하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기존 관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하는 모습이 영감을 일으킨다면, 그게 스포츠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을 덧붙였다.

최근 비디오 게임 산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초고속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의 향상과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오늘날 e스포츠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e스포츠가 스포츠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e스포츠는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제도화된 규칙을 갖고 있다. 과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e스포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의 빈약을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반대 측의 입장을 부정했다.

두 번째, e스포츠는 외적 동기를 갖는다.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한국의 프로 e스포츠의 평균 연봉은 2억가량이며, 이는 비슷한 연령대인 20대 초중반의 당시 연봉인 3,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이다. 계구리(김세연) 선수는 2019년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10대 리더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8년 BTS가 선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프로 게이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세 번째, e스포츠는 활동성을 띤다. e스포츠는 양손과 같은 소근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스포츠는 대근육을 사용한다. e스포츠는 근육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스포츠

로 인정받은 사격이나 바둑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몸의 움직임과 특정 근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활동성으로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구분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네 번째, e스포츠는 경쟁을 수반한다. e스포츠 시합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 팀의 전략을 능가하는 전략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e스포츠도 경쟁적 구조를 포함하는데, 이는 스포츠에서 신체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과 닮아있다.

다섯 번째, e스포츠는 폭넓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단순히 지역적 흥미나 유행에 그치는 게임을 넘어서야 하고 광범위한 지지층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 e스포츠의 주 소비층은 MZ세대이다. 어려서부터 비디오 게임을 접하며 자란 그들은 10~20년 후에 기성세대가 되더라도 e스포츠를 좋아할 것이다. 그보다 더 어린 세대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 e스포츠의 위상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e스포츠는 자발적 놀이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경쟁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 정확성, 집중력, 신체 동제, 빠른 움직임, 지구력, 팀 전략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의 e스포츠를 이루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지층,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니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렵다. 고대 올림픽 시대의 전차 경주, 보병 경주, 판크 라티온과 같은 경기가 사라진 것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e스포츠도 스포츠로써 인정해주어야 한다.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e스포츠, 기존 스포츠와 본질부터 달라

지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많은 화제가 되었다. 아무래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첫 아시안게임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게임과 스포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e스포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걸 스포츠로 봐야 할지 아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게임은 기존 스포츠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포츠라고 부르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신체적 관여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라 하면 신체를 단련하고 몸의 각 부분을 정교하게 사용·조절하며 그 기량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e스포츠의 경우 일반적인 스포츠 정서와 괴리가 있다. 기존 스포츠는 신체 능력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지만, e스포츠는 신체 능력보다는 두뇌와 전략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두 번째, 게임의 사유성 문제가 있다. 딱히 주인이 없는 스포츠와 달리 게임은 사기업의 소유물이다. 대회 종목으로 채택된 게임이 누리게 될 전문학적 금액의 마케팅 효과는 그 사기업이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대회에서 게임을 종목으로 삼는다면 게임이 선정되는 순간부터 해당 기업은 대규모 이득을 얻게 된다. 이는 게임 종류 선정부터 게임 선정까지 저작권료 문제, 그에 따른 논란과 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e스포츠 종목선정의 공정성이 기존 스포츠에 비해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e스포츠의 제도권 탑승에 큰 약점이 된다. 또, 주최 측이나 스폰서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반대로 상대가 불리한 쪽으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패치 문제가 있다. 스포츠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패치 문제이다. 기존 스포츠들도 룰 변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e스포츠는 이러한 변경

의 범위가 매우 크고, 동시에 잦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시즌 중간에도 변경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경기력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혹자는 e스포츠 선수의 실력의 척도를 두고 게임을 잘하는 것만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가리키는 대로 잘 따라 하는 게 실력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네 번째, 수명 문제가 있다. 비디오 게임을 통해 경쟁하는 스포츠인 만큼 게임의 그래픽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픽은 시대별로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의 경우에는 최신작보다 그래픽이 밀리게 된다. 즉 10~20년이 지나면 어느 게임이든 낡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롭고 진보된 시스템으로 무장한 최신작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은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e스포츠는 특성상 종목이 기존 스포츠에 비해 매우 자주 바뀌며, 한 가지 종목이 오래 존속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한국에서 특별히 e스포츠의 스포츠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군 면제에 있다. 군 면제가 걸려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위상이 한국에서는 압도적이기도 하고 기존 스포츠와 대등한 위상을 가진 스타 선수들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길 원하는 팬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결론적으로 게임이 스포츠로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게임과 스포츠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논란과 이슈를 통해 우리는 게임과 스포츠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l020@jj.ac.kr)



성탄 기념 점등 예배



지난 12월 4일 우리 대학에서는 성탄 점등식을 맞아 본관에서 성탄 기념점등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성탄 기념 점등 예배에는 전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박진배 총장도 자리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한병수 목사(전주대학교회 담임)의

기도로 문을 연 성탄 기념 점등 예배는 '성탄의 의미'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은혜가 더욱 깊어졌다. 또한, 그곳에 모인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며 성탄 기

념 점등 예배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전주대학교 성품체플은 2024년도 많은 캠퍼스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음을 다해 함께 하고 싶다면 063-220-2423(선교지원실 조경석)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6@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12월, 세모의 언덕을 오른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 힘겨운 나날이었다. 매해 시간 여행이 쉬운 적은 없었지만, 올해 역시 힘든 시간을 견디느라 모두가 애썼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홍수와 기근과 질병 가운데 지구촌은 외줄을 타듯 위태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희망의 땅을 경작해야 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자기들만의 이익에 따라 서로들 손가락질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는 사람들의 지탄 거리로 전락했다. 대학의 위기는 끊이지 않는다.

▼ 전주대학교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민 6:24~26)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학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끊이지 않는 분열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풍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안에 머뭇’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거쳐 가는 나그네 살임을 잘 안다. 사도바울처럼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사모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8).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후 5:10).

▼ 하나님께서 세우고 운행하시는 전주대학교이기에,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주어진 삶의 참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일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소망했던 사도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의 신앙 간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후 5:9). 아멘.

장선철 교수 (前 상담심리학과)

기도문

아듀(Adieu), 2023! 2024학년도를 기다리며

2023년도에도 전주대학교와 함께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학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S등급 평가를 받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고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전주대학교가 지방대학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더 멀리 뛰기 위해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LINC 3.0 사업 등으로 학생들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2024학년도 글로벌 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응욱 집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집필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셔서 우리 학교가 품고 있는 지역을 향한 비전,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도 끝나고 정시 모집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롭게 자신의 꿈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 전주대학교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입학처장님과 입학처 직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진배 총장님을 비롯하여 학교의 주요 업무를 돌보고 있는 처장단, 학장단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학교를 위해 고민하면서 내리는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이를 실천해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연합하게 하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지키시며, 전주대학교의 2024학년도에도 함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하나님의 테스트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17:1)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24년 전에 주어졌다. 그러나 자녀의 소식은 없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밝히신다. 약속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은 과연 어떤 속성일까? 왕주먹 같은 막강한 에너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휘감았을 법한 상황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하신다. 사람들 앞에서의 완전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이다. 믿음의 조상도 심기가 많이 뒤틀렸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는 말은 이미 24년간 컷가를 맴돌던 상투적인 문구였다. 아브람의 아내로 하여금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공약도 24년째 철회된 문구였다. 이에 믿음의 조상은 하갈을 통해 낳은 서자 이스마엘 삶이라도 밝으면 좋겠다며 말뿐인 하나님의 24년째 출산공약 불이행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은밀한 테스트요 깊은 신앙에의 초청이다.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믿음의 테스트는 자신에게 어떠한 지각이나 경험이나 구체적인 선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자신 때문에 행하여 완전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테스트다. 만만치가 않다. 더군다나 아브람은 심기도 불편하고 마음의 서운함도 극에 달한 시점이다. 동시에 이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차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초청이다. 땅의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를 둔 신앙에의 초청!

태가 끊어지고 자녀에 대한 소망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땅의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태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수십 년째 성취되지 않고 성취에 대한 기대감의 기미도 종적을 감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처신에는 흔들림과 후회함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다. 이는 본문이 신앙의 깊은 테스트요 깊은 신앙에의 초청인 이

유라고 생각한다.

이삭이 주어지고 자신의 신앙을 뒤따르는 무리들이 증가하여 바닷가 모래의 수효보다 많고 하늘의 별들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땅에서의 현상에 의존한 땅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의 유무가 우리에게 신앙의 근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경험 의존적인 신앙, 논리 의존적인 신앙, 이해 의존적인 신앙, 환경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보다 더 강하고 항기로운 신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람이 받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초청이 때때로 주어진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의 여정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고수함이 좋다. 하나님의 속성은 땅의 일로 인해 좌우되지 않고 변경됨이 없다. 혹 하나님의 속성과 상치되는 일이 땅의 현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 현상을 해석함이 정당하다. 이는 인식의 등뼈를 통째로 교체하는 일이기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식의 숨통이 막히는 일이겠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땅의 현상에 언제든지 선행한다. 이런 진실을 고수함이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유익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유교적 윤리

<쉽게 읽는 성경> ⑩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우리나라가 19세기 말부터 백 년간 계몽주의와 식민시대, 근대화의 소용돌이를 겪는 와중에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우리 한국인들의 삶과 생각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기독교보다 몇 백 년 먼저 들어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 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성리학이었다. 유교적 가치관과 윤리 규범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기저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삼강오륜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과 연장자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는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신의와 명분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위선의 문제는 차지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있어서 유교의 기본 가르침이 여전히 중요하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유교적 윤리 규범과 기독교의 윤리 규범은 어떤 면에서는 충돌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만약 예수가 오늘 한국 땅에 왔다면 우리 사회의 유교적 도덕규범에 대해 뭐라고 할까? 한국 사회에 작용하고 있는 유교적 규범 중 여전히 강력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부모 공경, 즉 효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 혹은 연장자에 대한 예우와 공대이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성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십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 첫 네 개에 이어지는 여섯 개의 사회적 규범 중 첫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공경은 단지 태도나 언어에 국한하지 않는다. 경제적 생산력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한 연로한 부모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었다. 하지만 신앙심 깊은 유대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복에 대해 감사할 종교적 의무도 지고 있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는 비용이 들었다. 그 둘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수 당시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부모를 공양하는데 써야 할 재정적 자원을 “하나님께 드림”(코르반)에 썼다.

예수는 이 행동을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의 한 사례로 지적하면서 날카롭게 꼬집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태복음 15:5-6).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림’을 명목으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다. 효를 중요

한 덕목으로 여겨 온 한국인들에게 예수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한 훌륭한 스승이다.

하지만 예수를 효의 주창자, 유교적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는 스승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모신 후 예수를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예수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8:22)고 도전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복음 19:29)는 약속을 주었다. 부모 공경을 포함해서 가족관계와 우정 등 모든 인간관계는 하늘나라의 제자도 앞에서 상대화되어야 한다.

지도자나 연장자에 대한 공대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계층 구조와 공적 권위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유교적 규범 역시 예수의 가르침의 도전을 받는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든 위계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좀 더 경직되고 권위적인가 아닌가의 정도 차이가 있고, 그 권위가 민주적인 절차와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대부분의 조직과 사회에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높고 낮음, 지도자와 대중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 예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8-11). ‘선생’, ‘아버지’(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지도자’라는 호칭은 물론,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지닌 권한과 지위가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당시 사회일반의 인정과 존경을 받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수의 의도는 명확하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평등하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 권위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2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실천한 공동체는 흔하지 않다.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위로 왕과 정승, 양반과 아래로 중인, 평민, 노예가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위계사회였다. 예수의 가르침은 때로 그런 위계와 차별을 도전하고 폐지하는 전복적 메시지였다. 개신교의 경우 조상 제사를 금하는 가르침 때문에 오랫동안 박해와 반대를 겪어야 했다. 다른 한 편으로 오늘날 교회에는 마치 조선 시대 신분사회처럼 수직적인 위계와 권위가 작동하는 것 같다.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냥 편안하고 즐겁지 않다. 그 말씀은 종종 넓고 쉬운 길과 좁은 길 사이에 선 우리에게 걸끄럽지만 옳은 결단을 하도록 종용한다.

기자칼럼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행방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왔다. 5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은 단연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학술적인 글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특정 예술가의 특징 및 기법을 모방하는 창작 수준을 뛰어넘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성형 AI의 발달에 저작권법이 따라가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허용해야 하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3D 등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생성한다. 이는 향후 10년간 9,2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예시로 사용자의 질문에 매끄러운 답을 하는 ChatGPT가 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7월 기준 월간 방문자 수는 15억 명 수준인 ChatGPT는 아마존 킨들 스토어의 전자책 중 200권 이상을 저술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출간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작가가 되는 길을 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사회와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저작법의 현주소

해외에서는 AI 저작권 문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AI 활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

작물에 대한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인공지능 저작물'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인공지능 저작자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인공지능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의한다.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 AI의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AI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AI에 의한 창조 행위를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발명이 양산돼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 직접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AI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일부 기업만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또, AI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희석되거나 세타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AI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을 거치는데 이때 인간이 만들어 낸 어마어마한 양의 저작물이 활용된다. 하지만 AI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현실이다. 단순히 AI 고도화를 위한 학습용 자료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저작물을 복제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하거나 학습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결과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기에 AI 저작권 이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기자수첩

더 나은 미래를 만들지 못한 나에게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친구와 함께 수습기자 지원서를 쓰던 20살의 나에게 편집장이 건넸던 말이다.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만드는 신문은 학생들에게 읽히지 않는 신문이었다. 2018년 4월, 나는 수습기자로서 첫 발간을 마치고 부푼 마음으로 매일 학생회관 신문 가판대에 찾아갔다. 신문이 다 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궁금했다. 하지만 신문은 며칠 동안 줄지 않다가 단 하루 만에 소진됐다. 그날은 봄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비에 젖은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신문을 바라보며 우리 신문의 현실을 깨닫게 됐다. 그 후로 나는 선배 기자를 따라다니며 취재 방법과 각종 노하우를 배웠다. 우리 대학 사람들이 신문을 찾아 읽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 당시, 우리 기자들은 발간일이 되면 신문을 양손 가득 들고 학생회관 1층과 단과대에서 신문을 나눠줬다. 그때 모르는 학우한테 목소리 작다며 혼나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막무가내였지만, 한 명이라도 더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타난 우리 나름의 발버둥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더 나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의 경쟁자는 너무 강했다. SNS에는 막대한 양의 최신 정보가 담겨있고 수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학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연한 일이었다. 1년을 바쳤지만, 여전히 가판대의 신문은 줄어들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는 한숨부터 나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캠퍼스에 돌아오니 신문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이따금씩 신문에 다시 지원했다. 수습이었던 내가 부장의 자리까지 오르더니 얼떨결에 편집장까지 맡아 후배를 이끌고 있다. 편집장을 맡은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신문사 홈페이지가 리뉴얼됐으며, 다양한 신문 디자인을 시도했고 자신의 관심 분야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우리 기자 중 한 명은 SNS를 활용하여 홍보도 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던 최근, 비 오는 날 우리 신문을 쓰고 가는 사람을 봤다며 한탄하는 기자가 찾아왔다. 과거 나의 모습이 생각이나 웃음이 났다. 나는 웃으며 후배에게 “신문 다시 채워야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신문에는 나와 선배, 후배 모두의 역사가 담겨있다. 우리의 공통점은 기자 생활을 즐겼고 더 나은 신문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종이 신문에 담겨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 마음이 존재하는 한 학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보내고 싶다. 쓴소리를 남겼던 사람, 기사 잘 보고 있다는 사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남겨주었던 사람 등 관심을 가져주었던 모두에게 감사하다. 그들이 나의 4년을 빛나게 해주었다. 나의 대학 기자 생활의 끝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찍는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나보다 뛰어난 후배들이 이어 나갈 것이니 말이다. 과거의 나에게 전한다. 더 나은 미래는 다가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음 떨어져 더욱 빛날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자고.

전주대학교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 일정 ~ 2024. 1. 29. (월)
2월 중 면접 예정 (개별 연락)

지원 자격 우리 대학 학부생

모집 분야 취재부 / 편집부
- 취재부: 다양한 교내외 소식 취재 및 기사 작성
- 편집부: 편집(디자인, 배너 제작 등) 및 신문 제작 업무

문의 - 대학신문사 : 063)220-2442
- 이메일 : news@jj.ac.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QR)

지원 방법 신문방송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메일 제출
- 지원서 다운로드 :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https://www.jj.ac.kr/jjnews>)
→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수습기자 지원서" 배너 클릭
- 제출처(e-mail) : news@jj.ac.kr (대학신문사)

혜택

1. 교내장학금 지급 (점기자 이상)
2. 학기별 CP포인트 지급
3. 취재 활동 지원 (기자실 공간 제공, 취재 용품 제공, 기자재 대여 등)
4. 교내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내부 글쓰기 프로그램, 현직자 특강 등)
5. 활동증명서 발급

교수칼럼

짜짜면 인재가 되자



이경재 교수 (경영대학장·금융보험학과)

“짜장면을 주문하자니 짬뽕도 먹고 싶고, 짬뽕을 주문하자니 짜장면도 먹고 싶고...”

누구나 중국집에서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수요에 맞춰 일부 중국집에선 ‘짜짜면’ 메뉴를 내놓았다. 같은 그릇을 절반으로 나누어 짜장면과 짬뽕을 절반씩 주는 것이다. 국숫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국수와 비빔국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반반 국수’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

우리가 중국집을 개업하려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맛으로 경쟁하려면 최고로 맛있는 짜짜면이나 짬뽕을 만들어 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고로 맛있는 짜장면이나 짬뽕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맛도 있으면서 둘을 절반씩 먹을 수 있다면 가장 가고 싶은 중국집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제치고 최고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분야를 융합하여 만들어 낸 후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예컨대 영어나 일본어 하나만 가지고 1등을 하기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이다. 컴퓨터를 최고로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본어도 적당히 하면서 컴퓨터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일본기업에도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다. 영어나 일어 하나만 잘하거나 컴퓨터 하나만 최고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안하지만, 필자의 예를 들어본다. 필자의 전공은 금융보험학이고 학위도 경제학박사이며 취미로 시를 좀 쓴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시인들과 겨루어 최고가

되는 것은 어렵없는 일이다.

하지만 전공 분야에 시(詩)와 인문학을 접목하여 ‘시(詩)경영학’, ‘보험인문학’, ‘시와 함께하는 치유와 행복의 인문학’ 등의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 냈으며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스스로 최고라 한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시와 인문학을 경영·경제나 보험학에 접목한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된 것이니 그냥 이 분야에서는 혼자 최고인 셈이다. 이렇듯 각자의 전공과 재능, 관심사 등을 자주 세분화하여 이 중 몇 가지를 접목하면 수많은 조합이 가능해지므로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과거에는 한 분야에 상세한 지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돌아간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런 사람을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boundary crosser)’이라고 일컬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정말 큰 노력과 힘든 과정을 거쳐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직업이 없어지거나 사양산업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야 한다. 한 분야에서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좋아하는 몇 개 분야를 아울렀을 때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이자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융합전공이나 마이크로디그리(MD)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독자투고

R&D 예산 삭감, 이공계의 미래는 어디로

1990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R&D 분야는 5조 2천억 원이 감소한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올해보다 16.6%나 감소한 것이다. R&D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핵심으로써 전 세계가 과학기술개발에 주목하는 반면에 뒤로 물러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발생시켜 국가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다. 정부는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아무런 소용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 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에 저항하여 많은 이공계 대학생 및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및 4개의 과학기술원은 정부의 예산 감축에 대해 공동성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R&D 예산 감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예산안에 따라 연구비가 삭감되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 과제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국립대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연구생들의 인건비이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연구생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인건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내년부터 연구비 예산 삭감이 진행된다면 인건비 지원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필자는 실제 학부연구생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 학부연구생으로서 석·박사생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생들의 헌신과 노력에 보답할 만큼의 인건비가 충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연구 성과를 위해 밤낮으로 실험실을 지키고 있다. 이공계 특성상 대부분이 항상 학교 실험실에 머물러 좋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말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구에 매달려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좌절할 틈도 없이 다시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어떤 과제를 맡게 되는지에 따라 자는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하는 그들의 노동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건비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과학계를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공계 인재에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된다. 많은 이공계 학생이 더 좋은 처우와 본인의 진로를 위해 국외로 진학을 희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우수한 연구 인력은 곧 성공적인 연구 개발에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둔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선 연구원들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들이 자원에 제한받지 않고 훌륭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루 일찍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길 소망한다.

정태희(환경생명과학과 20학번)

상담은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로 와!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
개인상담

카운슬링센터 ☎ (063)-220-2077 / 2368

1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 ✓ 상담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 ✓ 상담을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경험
- ✓ 말하고 싶지만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경험
- ✓ 외부 상담 기관을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던 경험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면, 다음 장으로 ➡

2
개인상담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받으러 오셨나요?"
개인상담은 어떻게 신청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요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 <https://forms.gle/CkyG6Lkx8T2z2a8>

오프라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학생회관 221호(카운슬링센터) 방문
- 02 개인상담 신청서 작성 및 심리검사 실시 (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03 제출 후 *접수면접 신청하기
- 04 접수면접 후 개인상담 시작

*접수면접: 본상담 이전에 상담받고픈 내용을 나누는 시간 (약1시간)

4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면?

"언제든 신청가능한 개인상담!"
나도 신청해보아요!
"오..."

전주대 학생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카운슬링센터

- 학생회관 221호(카운슬링센터) 207호 (활용센터)
- 상담 가능 시간 : 9시 - 18시 (휴일시간 12-13시)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김주란
편집장 | 송민호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올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Jeonju University Recently Organized a Human Rights Field Trip for College Students from the Jeonbuk Region in 2023

The Human Rights Center of Jeonju University, led by President Park Jin-bae, conducted the human rights field trip program on November 17-18 and November 24-25.

The purpose of this program was to provide experiential human rights education opportunities to college students in the Jeonbuk region. As pa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support project to expand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students had the chance to visit human rights-related historical sites in the Jeonbuk region. This program aimed to enhance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cultivate future leaders with a strong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ssues.

A total of 60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with 30 students in each session. Students from Jeonju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unsan National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and Woosuk University took part in this human rights site visit. During the trip, students visited various sites, including Palbok Art Factory, Jeolla Gamyong, All People's Gun, Kim Ju-yeol Martyr Memorial Hall, Supjeong Iseongji Site, a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in Jeongeup. These sites showcased the human rights struggles throughout the Jeonbuk region from the Joseon Dynasty to modern times, allowing students to develop a deeper sensitivity towards human rights.

At the Kim Ju-yeol Martyr Memorial Hall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hear vivid historical stories from interpreters. After the site visits, participants engaged in various human rights-related programs and formed meaningful connections with each other.

Students who took part in this trip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experience. They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they often took for granted and gained a new perspective on human rights. They expressed their desire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such programs and share their knowledge with others.

Professor So Hyun-seong, the head of the Human Rights Center,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his field trip. He emphasized that it was crucial for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who will shape the future, to develop a strong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foster friendship through visits to human rights sites.

| article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 translated by reporter Kang sua(xv0915@jj.ac.kr)

Student at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Carrying out Kimchi Volunteer Work with Love

In order to prepare for a warm winter,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igned an MOU with Sungye Professional Nursing Home (Director Choi Heon-il) on Friday, November 24. They discussed regional link service plans for 2024 and engaged in kimchi volunteer work.

The agreement ceremony held in the conference room of Sungye Specialty Nursing Home was attended by Director Choi Heon-il of Sungye Specialty Nursing Home, Senior Welfare Center Director Ahn Mi-sook, and Silver Home Director Shim Myeong-sook. Professor Ji-na Jeong and Professor Sang-mi Kim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also attended.

The main contents of the agreement are to promote cooperation for health care professional training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field training and employment, activation of volunteer work related to the major, and development of career and experiential education specialized field programs through mutual cooperation.

Afterwards, 20 students from the Health Management Department's volunteer club 'WITH Companion' participated in the kimchi volunteer activity. Even in the cold weather, they carefully filled pickled cabbage with filling to complete the kimchi.

'WITH Companion', a community-linked club in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at Jeonju University, conducts volunteer work and health education activities at public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s, and volunteer centers in Jeonbuk. Their purpose is to always be with those in need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Student Seungju Kim (3rd year,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id, "I am so happy to deliver the kimchi we made to difficult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who live alone. I think the joy of sharing is even greater."

Professor Jeong Ji-na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the advisor, said, "I hope that the students' warm-hearted kimchi volunteer work will help seniors get through the winter. Through continuous volunteer work, we will build industry-academia linkages with the local community, public institu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We will actively pursue this and strive to leap forward as a global university."

Meanwhile,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trains health educators who are experts in the fields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health education. It is growing towards the top in the Jeonbuk region in the nationally recognized licensing certification passing rate. In 2021, it received the '1st cycl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and certification visit evaluation'. It was the first 4-year university in Jeonbuk to obtain certification, showing a steady increase in the application rate for entrance exams.

| article Student at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 translated by reporter Kang sua(xv0915@jj.ac.kr)

Jeonju University Carbon Research Institute Donates to Korea Carbon Society's University Industry-Academic Development Fund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 recently held a ceremony to hand over funds for university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he funds were donated by the Korea Carbon Society and the Carbon Research Institute at Jeonju University. The ceremony took place at the university's main building on Wednesday, the 22nd.

The funds were donated as part of the preparations for the upcoming 2023 CSE (Carbon Saves the Earth) Symposium, which will be hosted by the Korea Carbon Society and Jeonju University Carbon Research Institute. The sponsors of the symposium, including Hyosung Advanced Materials Co., Ltd. (CEO Cho Yong-soo), Vinatec Co., Ltd. (CEO Sung Do-kyung), and Jeongseok Chemical Co., Ltd., held this development fund delivery ceremony. Other companies such as Deck Carbon (CEO Kim Gwang-soo/Woo Jong-in) and Thedeum (CEO Lim Seok-dae) also contributed to the fund. The donation aims to support the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leading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LINC 3.0) and nurture creative talent in the carbon field. A total of 10,000 won was donated.

The 2023 CSE Symposium, scheduled for August of this year, is an international symposium organized by the East Asian Korea-China-Japan alliance in the carbon field, in collaboration with Jeollabuk-do (Governor Kim Kwan-young). The successful hosting of this event is being supported by five sponsored symposiums. The industrial companies involved in this initiative are cooperative partners of Jeonju University's LINC 3.0 Project Group (headed by Director Professor Kim Sang-jin) and Jeonju University's Carbon Research Institute (headed by Director Kim Hong-geon). These companies, including mid-sized companies, are actively engaged in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which includes R&D in the carbon field and collabo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Carbon Convergence Engineering.

President Park Jin-bae of Jeonju University expressed his thoughts on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development fund. He mentioned that the fund was established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mid-sized companies in the carbon field within the region, particularly the Jeonju University Carbon Research Institute, which i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He emphasized that the university aims to foster creative talent in the carbon field and cultivate strong partnerships with local companies. He also added that the university will strive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 article Jeonj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translated by reporter Kang sua(xv0915@jj.ac.k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Jeonju University Holds National Pension Service Pension Reform Debate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Jeonju Univers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Jeonju Wanju Governor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recently organized a debate on national pension reform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people. The event took place at the Peace Hall of Jeonju University on Wednesday, November 22.

Led by Department Chair Professor Minyoung Kim, this debate was part of the academic festival held by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r. Hee-won Yoo from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served as the moderator, while six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Jeonju University participated as discussants, bravely sharing their thoughts on the matter.

During the discussion, participants raised various opinions, including concerns about the future decline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hen the automatic stabilization device is introduced, as well as the need to address the income gap problem resulting from an increase in the pension age. Dr. Hee-won Yoo provided answers and facilitated a productive discussion that allowed for the resolution of questions and a deeper understanding of pension reform.

Professor Minyoung Kim, head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Jeonju University, expressed, "This debate provided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deeply empathize with the necessity of pension reform."

In response, Choi Seok-young, head of the Jeonju Wanju branch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tated, "We will continue to gather opinions on pension reform plans in the future."

| article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translated by reporter Kang sua(xv0915@jj.ac.kr)

全州大学与中国河北大学签署业务合作协议



据全州大学对外弘报室1日消息，全州大学为了加强国际交流于11月28日与中国河北大学签署了业务合作协议。

为了签署双方的合作协议并讨论交流事宜，全州大学的朴珍培校长，国际交流院诸慧琴院长以及相关人员和河北大学的郭健党委书记，国际合作处邢慧彬副处长等代表在友好融洽的气氛中进行了深入广泛的会谈。根据具体协议，双方将在科研合作，师生交流，交换生项目以及影视媒体领域等四个方面推进实质性且具体的国际交流。

协议签署之后，全州大学请河北大学的有关人员参观了全州大学校园（包括星星中心图书馆和博物馆），还与来自河北大学的博士研究生进行了座谈会。最后，全州大学朴珍培校长宴请了中国河北大学代表团一行。

全州大学朴珍培校长表示：“通过此次与河北大学签署的四个领域协议，我们将进行具有实质性，实体性的国际合作交流，并将全力支持学生成长为国际化的人才。”

河北大学郭健党委书记表示：“河北大学将加强与全州大学相似专业上的合作，不仅在学生交流方面，在学术研究方面也将进行积极主动的交流。”

河北大学成立1921年，是在化学，材料科学，工程，临床医学，植物与动物科学等五个领域中排名世界前1%的优秀大学之一。目前，学校设有85个本科专业、80个硕士专业，17个博士专业和13个博士后专业，有超过2.8万名本科生和1.1万名硕士，博士生就读。

全州大学举行2023外国留学生诗朗诵大赛



全州大学（校长朴珍培）与韩国感性领导诗朗诵协会（会长李亨权，音译）合作，于2日在全州大学艺术馆JJ演奏厅成功举办了“2023外国留学生诗朗诵大赛”。

此次大赛旨在外国留学生通过朗诵韩国诗歌更多认知韩国文化和情感。

在大赛之前，由诗朗诵协会会员和外国留学生组成一对一的导师-学员团队，一起练习诗歌朗诵。

外国留学生通过韩国导师的指导不仅学到了准确的韩国语发音，也更加了解了韩国文学艺术。比赛也以团队形式进行。此次大赛得益于来自地方社区各种机构的赞助，如正石化学（音译），王之至盛（韩屋酒店，意为国王的寝宫），全州农协，全州医，Cotton Club，泰全药品（音译），宝多韩纸（音译），韩国健康管理协会，韩国文化艺术学院等，这些团体单位的赞助使这次大赛变得丰富而温暖。

获得大奖的中国学生栾亦彦和导师金仙玉（音译）朗诵了诗人何满夏（音译）的《路》。获得金奖的越南学生莱图伊江（音译）和导师朴明龙（音译）通过朗诵《成为千缕风》表达了《岁月号》的痛苦，引起了现场观众的强烈共鸣。

全州大学副校长洪性德表示：“得益于社区成员的关心和爱，通过诗朗诵我们让留学生了解了韩国文化和情感，使他们度过了有意义的时光。今后全州大学将持续开发有助于大学和社区共同发展的模式。”

韩国感性领导诗朗诵协会理事长李华京（音译）通过评语表示：“今天的比赛似乎对留学生理解蕴含在诗中的情感和文化有所帮助。”她还说：“留学生和我们会员发出的共同的声音，最终成为我们社会进步的和谐共鸣，这真是一段感人的时光。”

比赛获奖者分别为：大奖-中国留学生栾亦彦，导师金仙玉（音译）；金奖-越南留学生莱图伊江（音译）导师朴明龙；银奖-，国留学生林肯，导师柳东根（音译）；铜奖-缅甸留学生孔特奥潘（音译），导师千泰植（音译）；鼓励奖-中国留学生黄芷诺，导师郑行镇（音译）；特别奖-缅甸留学生盛兰，导师朴泰燮（音译）。



교육방송국 JEBS

"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



[교육방송국 2023 교내 라디오 공지]

12. 01(금)을 끝으로 2023학년도 2학기 정규 라디오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4학년도에 보다 나은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의, 스물 명작 업로드 안내]

- 상담심리학과 김연수 교수님 11. 28
명작: '블레이드 러너'
- 게임콘텐츠학과 윤형섭 교수님 12. 01
명작: '권력 이동'
- 건축학과 최영준 교수님 12. 08
명작: '98월드컵 예선 3차전 한국 대 벨기에전'
- 영어영문학과 황요한 교수님 12. 15
명작: 'I Believe I Can Fly'

[라디오 플레이리스트 이벤트 당첨자 공개]

- 당첨자 안내
- 노O진 202262042, 손O은 202329003
 - 이O원 202121039, 김O정 202012024
 - 박O현 202034021, 박O현 202125038
 - 이O아 202013229

당첨되신 학우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학우분들께서는 학생회관 3층 322호로 오셔서 상품을 수령해가시면되겠습니다.
*상품수령 기간은 12. 08(금)까지이니 빠른 시일 안에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라디오 방송 활동]

- [뉴스] 정오의 천장 : 월, 수, 금 점심방송
- [종교] 십자가 사랑 : 화, 목 점심방송
- [음악] 크레센도 : 매 아침방송 + 수요일 저녁방송



[자유]_타임머신

월요일 저녁방송
과거의 건축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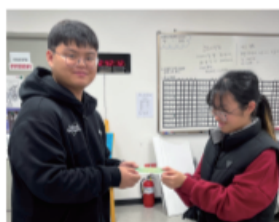
[자유]_별자리 여행

화요일 저녁방송
별자리들 속 이야기 여행



[자유]_은가비

목요일 저녁방송
교훈을 얻는 역사 이야기



문의사항은
맨 위 QR코드를 활용해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전주대학교 정시 모집

www.jj.ac.kr

원서접수

2024.1.3.(수) 09:00 -
2024.1.6.(토) 18:00



전주대학교 유튜브

전주대학교 